

해남 마을공동체 사업 68곳 전남 최다

올해 도·군비 4억2300만원 투입 단계 따라 500만~2000만원 지원 마을 장터 '역사 신문 제작' 등 다채

'어르신 반찬 챙겨 드리기' '3·1운동 역사마을 조성' '마을 신문 만들기'...

해마다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는 '해남 마을공동체' 사업이 올해 전남에서 가장 많은 68개소에서 추진된다.

해남군은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해남 공동체 68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남 시·군 최다 규모로, 지난해 사업(53개소)보다 15개소 늘었다.

전남도비가 지원되는 공동체 사업 대상으로 50개소를 뽑았으나, 주민 열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군비 지원 대상을 18개소 더 선정했다는 것이 해남군 측 설명이다.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지난해 2억8700만원에서 올해 4억2300만원으로, 47.4%(1억3600만원) 증가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체 사업은 '공기빛깔 사업'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기빛깔 사업은 1단계인 '씨앗'과 2단계 '새싹', 3단계 '열매' 등으로 구분해 단계에 따라 최대 500만~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에서 올해 새싹과 열매 단계에 진입한 공동체는 각각 11곳, 2곳이다. 지난 2017년 공동체



올해 해남지역 68개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펼쳐진다. 지난해 열린 '해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기초단계인 씨앗 단계에서 2곳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꾸준한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은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한 곳당 1000만원 이내 지원을 받는다.

올해 해남 공동체 사업은 마을의 개성을 살린 활동이 눈에 띈다.

대봉갑과 밤호박 등 마을에서 난 농산물을 가공 식품으로 함께 만들어 주민소득을 늘리고, 역사 신문을 제작해 마을 역사를 되새기는 활동이 이번 공동체 사업에 이목을 끌었다.

요리 교실과 우쿨렐레 연주, 예쁜 글씨 연습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함께하기도 한다.

삼산면 신기마을은 '술밭까끔 삼산장'이라는 마을 장터를 열고, 현산면 분도마을은 마을 고령 주민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천원 행복식당'을

열 계획이다.

도심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층간소음과 주차, 쓰레기 수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갈등 없는 아파트 만들기'에 팔을 걷는다.

해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는 중간 지원 조직인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역할이 컸다.

해남군이 양성한 마을활동가와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주민조직원, 갈등과 조정 등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송이도 산책로 '소원길' 조성

배상운 KH그룹 회장 기부로

KH그룹이 영광군 송이도에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소원길'을 조성했다. <사진> 송이도를 찾은 배상운 KH그룹 회장이 영광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며 계획된 산책로다.

소원길은 송이도 도민들이 해마다 풍년을 기원하며 제례를 지내기 위해 오르는 길의 상징성을 담아 붙여진 이름이다.

소원길은 어르신과 장애우, 어린이 등 방문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고 폭이 넓게 조성됐다.

또 안전을 위해 초입부터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정상에 도착하면 풍광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도록 전망쉼터를 마련했다.

박영길 송이도 발전위원장은 "연령대가 높은 도민들이 건강휴양을 할 수 있는 쉼터이자 공원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무척 반겼다"면서 "소원길을 따라 심은 꽃과 나무의 개화시기가 되면 송이도를 찾는 피서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이도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섬 중 '사진 찍기 좋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민과 관광객들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한 소원길을 산책하며 송이도 바닷가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H그룹은 법성포단오제와 영광굴비축제 등 지역축제 후원, 영광지역 관광벨트화 사업 협업 등 영광군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 꿈나무 후원과 장학금 사업, 동절기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내복 1500벌 지원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구례군,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영유아에 식품 패키지

구례군은 군민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영양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지원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6가지 식품을 패키지로 구성해 대상자 720명에게 월 1~2회로 나누어 최대 1년간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원에서 지난 9일 식품 배송 위탁 업체에 대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관리 지도·점검하고 위생교육을 시행했다.

또 사업 추진 시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감자와 당근 등 제품을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형진 구례군 보건의료원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공급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시 정원박람회 기간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하루 193명 단속반 투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잡산인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순천시에 따르면 D-40인 20일부터 박람회가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 254일간을 '2023 정원박람회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박람회 주변에서의 불법 노점상(자랑 이용, 포장 포함), 가방이나 카트를 활용한 영업 행위, 단체관광버스 내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박람회장을 비롯해 오전 저류지 광장 주변 도로, 동천 일원 (출렁다리~풍덕교, 벚꽃 개화 시는 용당교까지)과 주변 도로, 경관정원(풍덕들, 연향들, 해물들), 주차장(박람회장 내, 임시주차장, 연향들 주차장, 가든마켓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연향3지구 완충녹지, 순천만습지 주차장 및 어싱길 등이다.

시는 박람회 개최 전부터 불법 상행위에 강력 대응한 이유로 벚꽃 시즌과 박람회 특수성을 노린 잡산인들이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관광객 안전과 보행권 확보 등을 짚었다.

또 박람회장이 도심으로 확대되고 경관정원이 조성되면서 인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도심 내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사전계도, 집중 단속, 상시 단속 단계로 나눠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1일 평균 19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지역별로 박람회 조직위 직원 및 시 공무원을 배치하며, 전문 단속 용역업체 및 해병대 마린 협회(회장 김양락)는 단속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이동과 철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고자 순천대학교 상가변영회(회장 이정래), 금당중앙상가 변영회(회장 송지성)에서도 계도활동에 참여한다.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사전계도와 자율정비 절차를 거치며 자율정비 불이행시 강제 수거 조치 등 필요시 경찰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인들에 대한

전남도시군의회의회가 지난 15일 월례회를 갖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수료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시군의회의회 제공>

전남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월례회의

농협·수협 분사 전남 이전 촉구

전남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회장 강필규)는 최근 장성 농업인회관에서 제278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갖고 농협·수협 중앙회 분사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농협·수협 중앙회 분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남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한국전력

공사의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를 규탄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고금리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수료 및 이자 수취 관행을 개선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강필규 회장은 "인건비 상승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생계의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한 한전을 규탄하며 20일 열리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제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해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